

2009년도 시기문학 분야 연구 동향

박재민*

1. 통계로 살펴본 연구동향
2. 내용으로 살펴본 연구동향
3. 결론

본고는 2009년 한 해 동안(2009.1-2009.12) 학계에 제출된 고전시가분야의 학술지논문·학위논문·저술의 목록을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연구의 동향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향 기술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을 연구하였던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던가? 또 향후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하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년도에 어떤 학술지에 몇 편의 성과물이 제출되었던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년의 성과물 조사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의 언급에서 우리는 총취합에 대한 고심을 읽을 수 있다.

1997년에 이루어진 시기문학 분야의 연구 성과는 대단한 양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많은 연구 성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살피는 것은 (...)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었다.¹⁾

본고 역시 작업의 첫머리에서 위와 동일한 고민에 부딪쳤다. ‘논문을 빠짐없이 일일이’ 취합하는 작업에 대한 난감한 때문이었다. 고심 끝에 그간 『국문학연구』가 축적해온 ‘연구동향의 성과’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국문학

*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직부 강의전담 객원교수

1) 조홍욱, 「시기문학 연구동향」, 『국문학연구』 2호, 1998. p.323.

연구』는 2·3·4·6·8·10·12·14·16·18·20호에 ‘연구동향’을 수록해 오고 있는데, 이 논의들에서 게시해 둔 고전시가분야의 참고 학술지를 망라하여, 이 합집합 목록의 2009년 발행분을 모두 조사한다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논의의 영역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의 결과 게시와 간략한 의미부여를 제1장에서 행하고, 내용 동향은 제2장에서 다루려 한다.

1. 통계로 살펴본 연구동향

1-1. 자료 출처의 범주 확정

추산해보면²⁾ 최근 12년 동안 『국문학연구』의 고전시가 연구 동향에서 1회라도 참조한 학술지는 등재지 67종, 등재후보지 17종, 비등재지 63종으로 총 147종에 이른다. 그 학술의 場에서 2009년에 134명의 연구자들이 177편의 고전시가 관련 업적을 제출하였다. 147종³⁾의 학술지 중 2009년도에 한 편이라도 고전시가 관련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 학술지 목록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앞 [] 속의 숫자는 수록편수)

등재지(총67종 중, 2009년은 아래 36종의 학술지에 수록됨)

[24] 『한국시가연구』 제26·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5·11.

[19] 『시조학논총』 제30·31집, 한국시조학회, 2009. 1·7.

[16] 『고시가연구』 제23·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6·12.

[8] 『고전문학과교육』 제17·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구, 청관고전문학회), 2009. 6·12.

[7] 『반교어문연구』 제26·27집, 반교어문학회, 2009. 2·8.

2) 학술지 목록을 정리하고 해당년도에 수록된 논문을 추산하는 일은 시간을 많이 요하는 일이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공동작업해 준, 신현웅·박영민 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3) 147종 학술지의 총목록은 본고의 말미에 부록한다.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연구동향조사는 이 목록을 주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7] 『한민족어문학』(구, 영남어문학) 제54·5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9. 6·12.
- [7] 『고전문학연구』 제35·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6·12.
- [6] 『어문학』 제103·104·105·106집, 한국어문학회, 2009. 3·6·9·12.
- [4] 『국문학연구』 제19·20호, 국문학회, 2009. 5·11.
- [4] 『어문연구』 제37권 1·2·3·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봄·여름·가을·겨울.
- [4] 『어문연구』(구, 한국어문학연구) 제59·60·61·62, 어문연구학회, 2009. 3·6·9·12.
- [4] 『한국고전연구』 제19·2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6·12.
- [3] 『동방학지』 제145·146·147·148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3·6·9·12.
- [3] 『어문논집』 제59·60집, 민족어문학회(구 안암어문학회), 2009. 4·10
- [3] 『우리말글』 제45·46·47집, 우리말글학회 2009. 4·8·12.
- [3] 『우리어문연구』 제33·34·35집, 우리어문학회, 2009. 1·5·9.
- [3]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1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6·12.
- [3] 『한국언어문학』 제68·69·70·71, 한국언어문학회, 2009. 3·6·9·12.
- [2] 『국어국문학』 제151·152·153집, 국어국문학회, 2009. 5·9·12.
- [2] 『국제어문』 45·46·47, 국제어문학회, 2009.4·8·12.
- [2] 『문학교육학』 28·29·30,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4·8·12.
- [2] 『민족문화연구』 50·51,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9. 6·12
- [2] 『온지논총』 제21·22·23집, 온지학회, 2009. 1·5·9.
- [2] 『한국문학논총』 제51·52·53집, 한국문학회, 2009. 4·8·12.
- [2] 『한민족문화연구』 제28·29·30·31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2·5·8·11.
- [1] 『민족문학사연구』 통권39·40·41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 4·8·12.
- [1] 『민족문화』 33·34, 고전번역원, 2009. 6·12.
- [1] 『배달말』 44·45, 배달말학회, 2009. 6·12.
- [1] 『비교문학』 제47·48·49집, 한국비교문학회, 2009. 2·6·10.
- [1] 『새국어교육』 제81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4.
- [1] 『세계문학비교연구』 제26·27·28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09. 3·6·9.

- [1] 『어문논총』 제50·51집, 한국문학언어학회(구, 경북언어학회), 2009. 6·12.
- [1]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8·29·30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9. 4·8·12.
- [1] 『한국민족문화』 제33·34·3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3·7·11.
- [1] 『한국사상과 문화』 제46·47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1·9.
- [1] 『한국음악사학보』 제42·43집, 한국음악사학회, 2009. 6·12.

등재 후보지(총17종 중, 2009년은 아래 9종의 학술지에 수록됨)

- [2] 『고전과 해석』 제6·7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9. 4·10.
- [2] 『국어교육연구』 제23·24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9. 6·12.
- [2] 『국어문학』 제46·47집, 국어문학회, 2009.⁴⁾
- [2] 『동방학』 제16·17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4·10.
- [2] 『어문논집』 제40·41·42집, 중앙어문학회, 2009. 3·9·12.
- [1] 『개신어문연구』 제29·30집, 개신어문학회, 2009. 6·12
- [1] 『국어교육연구』 제44·45집, 국어교육학회, 2009. 2·8.
- [1] 『인문과학』 제43·44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2·8.
- [1] 『한국어문학연구』 제52·53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구, 동악어문논집), 2009. 2·8.

비등재지(총72종 중, 2009년은 아래 9종의 학술지에 수록됨)

- [2] 『한어문교육』 제20·21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9. 6·12.
- [1] 『경상어문』 제15집, 경상어문학회, 2009. 8.
- [1] 『문학과언어』 제31집, 문학과언어학회, 2009. 5.
- [1] 『사립어문연구』 19, 창원대학교 사립어문학회, 2009. 12.
- [1] 『어문학논총』 제28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9. 2.
- [1] 『연민학지』 제12집, 연민학회, 2009. 8.
- [1] 『이화어문논집』 제27집, 이화어문학회, 2009. 12.

4) 2010. 2월에 등재후보자격 소멸 예정.

- [1] 『인문과학연구』 제33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2.
 [1] 『한국문학연구』 제36·3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6·12.

전술했듯이 그간 『국문학연구』의 고전시가분야 연구 동향이 참조한 학술지는 등재지 67종, 등재후보지 17종, 비등재지 72종이다. 2009년의 경우, 67종의 등재지 중 36종, 17종의 등재후보지 중 9종, 비등재지 72종 중 9종에서 1편 이상씩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서에서 50% 이상의 게재 현황을 보인 반면, 비등재지에서는 대략 8종 당 1편 정도의 수록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논문을 수록했던 지면은 『한국시가연구』이다. 총 24편의 업적을 신고 있으며, 『시조학논총』(19편), 『고시가연구』(16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세 학술지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후반 사이에 새로이 창간되었는데 논문수록편수를 합하여 보면 59편으로 2009년 한해 발표된 모든 고전시가관련 논문(총177편)의 1/3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수록논문의 질로 보나 양으로 보나 고전시가분야 3대 학술지라 할 수 있다.

한편,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국어국문학』·『고전문학연구』는 각각 2편과 7편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그 위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편수가 적은 것은 두 학술지가 여타의 장르와 지면을 나누어 수록되기에 생기는 필연적 현상일 뿐, 2009년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특히 『고전문학연구』의 경우 2009년 수록 논문 총24편 중, 7편이 고전시가 관련 논문으로 고전시가연구자들이 타장르의 연구자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 학술지의 지면을 활용하였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외 『고전문학과 교육』·『반교어문연구』·『한민족어문학』 등의 학술지가 공히 7-8편씩의 성과물들을 실음으로써 고전시가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場으로 꾸준히 역할해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비등재지의 수록상황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의 수록 정황을 정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비등재지’에 수록된 논문의 파악이었다. 본고는 그간 『국문학연구』가 참조하였던 모든 학술지를 자료수집의 대상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72종의 비등재학술지를 취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학과나 연구소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2009년도 간행여부와 시가관련 논문 수록 편수를 파악하였다. 우리의 예상은 한두 편으로나마 그 학과의 전공자들이 그 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파악한 결과는 자못 충격적이었다. 위의 목록에서 보이듯 겨우 9종의 학술지만 고전시가관련논문을 배출하였으며, 그 중 많은 수는 ‘미발간·폐간’ 등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위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관악어문연구』·『선청어문』 등은 미간된 대표적 유명 학술지이고, 『연세어문학』은 오랫동안 정간 상태에 놓여 있어 곧 폐간 수순으로 들어갈 학술지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물론 이런 현상은 국문학의 分化와 관련된다. 규모가 있는 대학의 경우 국문학은 자체 분화하여 ‘고전문학·현대문학·국어학’의 전공 지면을 따로 마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앙학술지에 쏟을 여력은 크게 약화되었던 것이다. 필자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심화되리라 생각한다. 학술활동의 場은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만으로도 넉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급한 유명학술지 『관악어문연구』 등의 간행 지연은 무언가 아쉬움이 있다. 지금은 대부분 분야 최고 권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젊은 날 쏟았던 학적 열기’가 종합적으로 모인 그 지면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아쉬움을 지닌 과내 학술지는 학교마다 더 있을 것이다. 보존에 대한 학계의 衆智가 필요한 시점이다.

1-2. 최근 12년간 대비 2009년

위의 조사를 수행하면서 본고는 최근 12년간의 발표된 고전시가 관련 논문을 장르별로도 파악해 보았다. 動向이란 것은 ‘움직이는 방향’인 바, 과거의 운동방향을 모르면 현재의 운동방향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어떤 장르적 분포를 보이며 고전시가가 연구되어 왔는가를 살피는 것은 현재의 장르적 분포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그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연도	97 ⁵⁾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고대가요	0	3	1	0	1	2	4	1	1	0	3	1	3	
향가	7	17	8	12	20	15	19	13	5	16	18	20	12	
고려가요	4	21	5	8	7	6	10	8	4	6	3	5	12	
경기체가	2	4	1	3	2	3	1	1	2	1	1	2	1	
약장	1	1	1	3	8	1	5	2	0	4	3	3	8	
시조	6	24	14	12	46	26	47	43	29	33	45	52	49	
가사	4	28	9	25	21	39	34	37	23	25	25	41	47	
민요 잡가	1	3	2	2	0	2	4	0	4	2	11	4	7	
교육	0	0	6	3	3	3	3	0	1	8	3	11	16	
장르통섭	4	14	10	13	14	19	34	22	11	29	12	31	22	
석사 학위	11	17	일반	13	30	28	21	26	18	7	6	14	24	14
			교육	24	12	15	0	10	14	11				17
박사학위	6	11	9	9	10	6	7	7	13	5	5	6	10	
단행본	10	18	4	未備	11	15	23	25	17	15	15	17	30	
합계	46	143	107	132	186	158	227	191	128	150	158	217	248	

표1. 최근 12년간 연구성과 집계표⁶⁾

위의 도표는 최근 10여 년간 고전시가연구의 양적 흐름을 장르별로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특별한 연도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150-200건을 약간 상회하는 연구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논문 취합 현황의 오차를 감안할 때 일반화할만한 꾸준한 증가세나 감소세는 감지되지 않는다. 2009년의 연구동향 역시 ‘큰 요동 없이 꾸준히 지속되었다’라 할 만하다.

5) 97년도의 경우 전산자료의 활용이 어려웠던 시절이라, 『국어국문학』·『한국고전연구』·『한국시가연구』 등의 3개 학술지에 한정하여 연구동향을 집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국문학연구』 2호, p.324를 참조할 것.) 그렇기에 본고에 기입된 97년의 수치는 참조로만 보여주었으면 한다.

6) 수치는 본 학회에서 발행한 『국문학연구』 1호(1997)~『국문학연구』 20호(2009)에 수록된 연구사동향의 참고문헌을 계량화한 것이다. 각 시기마다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하나 대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2009년도에서도 시조·가사가 가장 많은 연구실적을 제출해 온 장르가 되었으며, 고대가요·경기체가·약장·민요 등이 소수 혹은 미개척 장르로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향가는 최근의 연구편수에 비해 볼 때 큰 폭 하락하였으며, 고려가요는 뜻밖에 근래의 편수에 비해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각 장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제2장의 각 서두에서 재론한다.

위의 도표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곳은 석사논문과 박사논문의 양적 변화 추이이다. 우리는 지난 연구사의 한 장에서 한 다음의 언급을 기억한다.

지난해에 나온 시가 분야 학위논문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박사학위논문 13편과 석사학위논문 7편이 제출되었다. (...) 석사취득자가 박사취득자보다 적은 역전 현상은, 국문학회 회원들을 보아도 그렇듯이, 고전문학 가운데서도 시가연구 지원자가 최근 줄어든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겠다.⁷⁾

위 인용은 2005년도의 연구동향에 대한 것으로, 2000년대 초반 몇 년의 석사학위 대 박사학위 비율이 3대1 혹은 4대1의 비율을 꾸준히 유지했던 상황에서 일거에 1대2로 역전되어버린 상황을 우려한 언급이다. 그 후 2006년의 1대1 보합상황을 거쳐 다시 석사학위 논문이 차차 비율을 높여 나갔고⁸⁾, 2009년 현재는 약 2대1정도의 비율로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다. 아직 2000년대 초반의 3대1 정도의 비율까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원인은 박사학위 취득자의 수효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까닭도 있으므로, 고전시가 연구자들의 枯死현상은 어느 정도 위기를 넘겼다 진단할 만하다. 이외, 석·박사학위 취득의 장르별 분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제2장의 각절 말미에서 따로 논한다.

7) 조세형, 「2005년도 시가문학분야 연구 동향」, 『국문학연구』 제15호, 2006. 12. pp.418-419.

8) 2006-2008년도의 석사학위논문은 교육·일반이 잘 분간되지 않아 임의로 통합하여 처리하였다.

2. 내용으로 살펴본 연구동향

2-1. 고대가요

통상적으로 고대가요는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하가>의 세 작품을 지칭하는 개념어이다. 작품의 수가 많지 않기에 연구 논문 또한 근래 10여 년 동안 늘 5편 미만의 빈도를 보인다. 앞의 통계를 발췌 수록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편수	0	3	1	0	1	2	4	1	1	0	3	1	3

표3. 고대가요

비록 편수는 많지 않지만 꾸준히 연구적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작품들이 우리 문학사의 벽두를 장식하고 있다는 점과 선학들이 남겨 둔 난해한 몇 수수께끼들 때문이다. 2009년의 연구에서도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남겨진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임재욱의 논문은 <구지가>의 ‘龜’가 신령한 토탑이라는 기존의 설을 수용한 가운데, 그런 신령한 존재에게 던진 ‘구워서 먹겠다’란 위협적 언술의 정체를 해명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신령한 존재에게도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몇 설화를 통해서 보여 주었다. 그가 든 몇 편의 설화가 과연 모순을 해결해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자들의 평가가 엇갈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문 자체는 분명히 정당하다.

이영태의 논문 또한 기존 논의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다. 황조가의 유명한 1차, ‘王嘗息樹下’에 대한 논의이다. 이 한 자로 황조가의 ‘민요설·개인서정시설’이 엇갈리게 되는데) 그는 몇 문헌 용례를 들어 ‘嘗’을 해독에 넣어야 한다는 기존의 견해에 무게를 더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설의 확인이란

9) ‘嘗’자를 없는 셈 치면 치회가 떠나가 버린 쓸쓸한 심정을 노래한 개인 서정시가 되고, ‘嘗’자를 ‘일찍이’로 해석하면 그 사건 이전에 부른 노래가 되어 창작성을 의심받게 된다.

의미 이상을 떠기는 어려우며, 더구나 그 후 펼쳐진 ‘『詩經』 차용 어구들의 확인’은 기존의 논의¹⁰⁾를 거의 재인용하다시피하고 있어 논문 전체가 20년 전의 연구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구사회의 논문은 선학들의 수수께끼를 벗어내려는 시도였다. <공무도하가>의 배경설화에 흐르는 ‘몽롱하고 신비한 느낌’을 걷어내고, 이 작품을 비극적 현실을 담은 ‘디아스포라(이산민족의 문학)’로 규정했다. 백수광부는 강을 건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강제 이주된 고조선의 유민이고, 이 노래에는 그런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결론이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겨 이 논문의 향후 숙제를 암시하고 있다.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켰다는 기록은 역사적으로 너무 유원하여 확인되지 않는다.”¹¹⁾ 이 언술은 이 논문의 가장 아픈 곳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필자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협력의 요청 메시지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학위논문은 1편이 제출되어 연구의 맥을 이어 나가고 있다. 조인환¹²⁾의 <공무도하가>에 대한 논의가 그것인데 2007년¹³⁾에 이어 다시 <공무도하가>가 재론되었다.

2-2. 향가

꽤 충실히 연구업적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향가관련 논문 편수는 최근 10년의 연구실적에 비해 급격한 하락을 했다. 연구 편수의 추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편수	7	17	8	12	20	15	19	13	5	16	18	20	12

표4. 향가

10) 김창룡, 「황조가(黃鳥歌)의 저변(底邊)」, 『한성어문학』7집, 한성어문학회, 1988.

11) 구사회 상계서, p.18.

12) 조인환, 「<공무도하가>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8.

13) 변유유, 「공무도하가 연구 - 중국시가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그간 향가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 주었던 성호경·신재홍·양희철 등의 대표적 향가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겨냥해오던 단행본을 출간한 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점¹⁴⁾, 또 구결학회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향가의 작품별 해독 또한 2007-2008년間に 모두 학술지에 발표되어 곧 출간을 기다리는 시점이 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연구적 상보성을 보이는 고려가요의 편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¹⁵⁾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향가 분야에 대한 관심은 2009년에도 어학적·문학적으로 여전히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학술지 논문으로 주목할 만한 어학적 업적은 고창운의 작업이다. 그는 ‘김완진의 해독’을 바탕으로 신라향가의 어말어미(語末語尾)를 체계화하고 있는데, 향가의 문법적 체계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 하나의 향가연구사적 의미를 든다면 그 작업을 ‘김완진의 해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현희¹⁶⁾가 ‘가장 정치한 해독’을 하였다고 평한 김완진의 해독은 그간 꾸준히 향가연구자들에게 인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동향이 2009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꼭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박재민의 「헌화가」· 원가 에 대한 통석(通釋)도 이어졌다. 박사학위에서 연구하였던 삼국유사소재 향가의 원전비평, 차자·어휘 변증을 바탕으로 각 작품을 개별적으로 해독해 보려한 시도이다. 향찰 자체뿐만 아니라 이두·구결 등 활용가능한 모든 차자표기를 이용하여 해독의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 준 특징이 있으며 향가 전편의 해독을 위한 신호탄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한편, 또다른 어석작업으로 <도천수대비가>에 대한 황병익의 논의가

14) 성호경은 『신라향가연구』(태학사, 2008)로 향가연구의 한 단계를 정립한 후, 2009년은 타장으로 관심을 일시 옮긴 상태며, 신재홍은 『향가의 미학』(집문당, 2006)으로 긴 향가 연구를 일단락한 후, 『화랑세기 역주』(태학사, 2009)와 소설관련 논문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양희철은 『향찰연구 12제』(보고사, 2008)로 그간의 논의를 보론한 후 근래에는 시조관련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15) 표1을 보면 향가와 고려가요의 연구편수는 그 합이 대체로 20편을 약간씩 상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것은 그 두 분야를 함께 다루는 연구자가 많기 때문이다.

16) 이현희, 「향가의 언어학적 해독」, 『새국어생활』 제6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6.

있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향가와 고려가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왕성히 수행하고 있는데 2009년의 <도천수대비가>의 해석은 그 흐름을 이은 것이다. 이 논문의 주안점은 ‘古只’의 해석에 있다. 이 어휘체를 향찰 독법에 의해 ‘고기’로 읽고 뜻을 ‘고기(肉)’라 본 후, 다시 배경설화에 나타난 눈병(눈에 자라난 고기로 인해 失明하는 병)과 연관지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무리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원래 이 어휘체는 구결(口訣)에서 수없이 나타나는 형태로 ‘어말어미’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논문은 어학연구가 결합된 詩歌 논문의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외, 박용식의 논의는 삼국유사 소재 향가의 口傳性에 관한 것이다. ‘歌’의 특성상의 필연적으로 구비문학적 성격을 띠며 그렇기에 가변적인 특성을 가졌을 것이라 전제는 타당하다. 그리고 내린 결론, ‘가변적인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휘가 아닌 문법형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음’도 지적할 것 없이 타당하다. 이러한 전제는 200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향가의 형식과 미적 기반, 서정성에 대한 논의도 해마다 제출되며 2009년도에도 그 흐름을 잇고 있다. 류병윤의 논의는 <서동요>의 형식적 기반이 민요에 있음을 믿은 결과이고, 엄국현의 <풍요>에 대한 논의는 그 노래의 형식적 기반이 ‘굿노래’에 있음을 믿은 결과이다. 그러나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계로부터 어느 정도의 호응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철원과 김진희의 논문은 각각 신라 향가의 미적 기반과 서정성을 논한 결과물이다. 서철원은 신라 향가의 미적 기반을 논하기 위해 신라의 사상가의 의상, 원효, 최치원 등 3인의 문학론을 비교하였고, 김진희는 시간성과 송도적 서정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모죽지랑가>와 <찬기파랑가>의 문학성을 분석했다. 다소 난해한 측면이 있으나 이 두 연구방향은 향가 연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試論的 의의 이상을 지니고 있다. 한편, 수로부인의 관능미의 원천을 논한 이승남의 논의도 무척 흥미롭다. 역시 향가 연구의 한 지평을 연 논의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석·박사학위, 단행본의 동향을 첨언한다. 전술했지만 2009년의 향가연구는 학술지논문으로는 이전의 몇 해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사학위논문으로 2편이 제출되어 향가연구에 여전히 새로운 연구자들이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단행본 또한 신재홍,¹⁷⁾ 이연숙, 고가연구회 등에 의해 출간되었다. 이는 향가가 신·구 연구자들에 의해 여전히 진지하게 탐색되고 있는 장르임을 우리에게 알린다. 이 외, 향가 관련 단행본을 출간하려는 학회 또는 개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에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3. 고려가요·경기체가

2009년의 연구 동향에서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장르는 고려가요이다. 98년 본격 궤도에 오른 『한국시가연구』 3·4호, 이동영 박사 정년기념으로 발행되었던 『한국시가의 사상적 모색』에 시가관련 논문이 대폭 수록되었던 영향으로 21편의 기록적인 업적이 제출되었던 이래, 두 번째로 많은 논문 편수를 기록했다. 그 추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고려가요	4	21	5	8	7	6	10	8	4	6	3	5	12
경기체가	2	4	1	3	2	3	1	1	2	1	1	2	1

표5. 고려가요·경기체가 연구 편수

2009년에 많은 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향가와 고려가요를 동시에 연구할 역량을 갖춘 김창원, 여기현, 이영태 등의 연구자들이 공교롭게도 고려가요 쪽에 관심을 보인 영향과, 고려가요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임재욱, 또 다른 분야의 전공자인 김금남, 이병찬, 이정선 등의 합류 때문이었다. 새로운 연구자가 많이 합류하여 무척 반갑지만 새로운 자료 발굴 등의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라, 아무래도 잠시간의 ‘학문적 외출’ 느낌이 강하여 향후에도 고려가요의 연구 편수가 증가되리라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7) 신재홍은 『화랑세기 역주』(태학사, 2009)는 그의 화랑세기에 대한 신뢰 입장을 단적으로 대변해 준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화랑세기』의 진위 공방은 이러한 진지한 학술적 공방과정을 거칠 때 남득할만한 해결 지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가요는 향가와 더불어 어석의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려 있다. 2009에도 그런 문제의식은 지속되었고, 2편의 연구결과가 제출되었다. 조용호의 <이상곡>의 해석에 관련한 논문과 임재욱의 <동동>의 새로운 해독과 해석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진자는 노랫말 중의 ‘生陷’의 여성의 성기, ‘년 피’를 다른 남성의 성기라 풀이하는 과격적인 해석을 시도했는데 문증되지 않는 과도한 추정이 많아 이 풀이를 신뢰하고 인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비해 임재욱의 논의는 보다 문증적인 측면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동>의 11월과 12월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가 “새로운 만남을 수궁하게 되는 쪽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비극적 파국’으로 보아오던 기존 견해와는 꽤 다른 결론에 이른 점이 주목된다. 흥미롭게도 이영태 또한 <동동> 속 화자의 정서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의 결론은 “화자의 소망이 좌절된 상황을 12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로 기존설의 편에 서 있다. 결국 舊說과 新說의 충돌이 2009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노래를 두고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 생겨난 경우가 <서경별곡>에서도 있었다. 김창원과 이정선의 <서경별곡>을 두고 보인 대립적 견해가 그것이다. 두 연구자 모두 ‘역사적 사실’을 활용하여 두 노래의 생성배경을 풀었지만, 김창원의 경우 ‘서경’이 지닌 일회성·유흥성에 주목하여 이를 ‘남녀 간 이별의 노래’로 풀었고, 이정선의 경우 ‘서경인을 버리고 떠나는 임금에 관련한 노래’로 풀었다. 역사적 진실이 하나라면 이 둘 모두가 적중할 수는 없게 된다. 이 논의들은 전승·향유의 문제가 아니라 노랫말의 최초 발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처용의 형상을 관상학적으로 풀이한 이종숙의 논문, <가시리>의 연원을 <원사(怨詞)>에 둔 김금남의 논문, 시용향악보의 <대국 1,2,3>과 <별대왕>의 리듬을 음악적으로 분석한 문숙희의 논문 등은 모두 시가를 전공으로 하지 않은 이들의 결과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고려가요에 대한 이러한 측면적 지원은 우리가 고려가요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극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편, 경기체가 관련논문은 1편이 제출되었다. 변유유의 한림별곡에 끼

친 송사의 영향을 논한 논문이 그것이다. 논문의 핵심은 ‘장단구의 배열 · 명사구 나열 · 감탄허사의 존재 등으로 볼 때 한림별곡은 송사의 영향’이라는 것인데, 나름의 근거를 지니고 있어 향후 연구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고려가요에 관련한 석박사 학위논문 동향을 덧붙인다. 2009년은 고려가요와 석박사 학위논문 모두가 근래의 침체를 벗어난 해이다. 표 1에 나타나듯이 고려가요 뿐만 아니라 석박사 학위논문도 41편이나 제출되어 예년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고려가요를 전공한 학위논문은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1편만이 조사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려가요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은 2003년도에 1편¹⁸⁾을 마지막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가요는 오랜 연구 역사를 지닌 매력적인 장르이다. 다행히 2007-2008년간 고려가요로 석사학위를 받은 이들이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것으로 안다. 몇 년간 힘을 축적하여 새로운 방법론으로 고려가요를 재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4. 악장

악장의 연구 편수 증가도 눈에 띄는 2009년의 현상이다. 총8편이 제출되었다. 추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편수	1	1	1	3	8	1	5	2	0	4	3	3	8

표6. 악장

이러한 증가세는 정소연의 3편의 논문에 힘입은 바 크다. 그는 3편의 일련 논문을 통하여 <용비어천가> · <월인천강지곡> · <악장가사> · <악학궤범> 등에 나타나는 한글과 한자, 즉 양층의 표기방식이 지닌 특성을 분석했다. 이 세 논문의 결론은 유사한데 한자 표기는 주로 神·王·남성과

18) 조기봉, 『고려시가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2003(『2003년도 시가문학 분야 연구 동향』에서 재인용함).

관련되어, 한글은 주로 여성·승려·백성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논의는 그간 권두환,¹⁹⁾ 이종묵²⁰⁾ 등에 의해 꾸준히 고심되어 온 ‘한자와 한글’의 변별적 사용에 대한 논의를 이었다는 의미가 있으나, 세부논의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악장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용비어천가>에 대한 음악적·문헌적 연구도 2편이 제출되었다. 김세종과 김승우의 논의가 그것이다. 특히 김승우는 <용비어천가>의 고판본을 근거로 현재 125장으로 알려져 있던 용비어천가는 원래는 123장이었으며 제107장과 제124장이 추가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되었다는 견해를 보였다. <용비어천가> 123장설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것이었으나, 후대에 보입된 두 章을 실증적으로 추정해 지목해 내었다는 점에 이 논문의 장점이 있다.

한편, 明 태종 때 제작된 ‘명칭가곡(名稱歌曲)’이 조선에 전래되는 과정과, 이 곡이 악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시가사에 끼친 영향을 문헌 자료를 통해 충실히 고증해 낸 임주탁의 논의도 2009년의 의미 있는 수확이다.

악장과 관련한 학위논문은 교육대학원에서 1편 제출되어 이 장르에 대한 현재의 낮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악장은 조선초 시가의 일면모를 밝혀 줄 가장 중요한 장르 중의 하나이다. 국운을 건 사업, 즉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거나 불교의 포용²¹⁾을 위해 악장이 적극 활용되었다는 것은 당시 악장이 가진 권위와 영향력을 자체적으로 말해준다. 그간 조규익을 비롯한 몇 연구자에 의해서만 주도되어 왔지만 이 장르가 가진 연구적 잠재력은 무척 큰 편이다.

2-5. 시조

표1에서 보았듯이 시조와 가사는 고전시가 분야에서 해마다 가장 풍성한

19) 권두환, 「목소리 낮추어 노래하기」,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20) 이종묵,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 『진단학보』 104집, 진단학회, 2007.

21) 세종의 불교 포용정책과 악장 정비에 관련된 사항은 임주탁, 「명칭가곡(名稱歌曲) 수용의 양상과 의미」(『한국문학논총』 51집, 한국문학회, 2009)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

연구실적을 쌓아 오고 있는 장르이다. 표로 다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편수	6	24	14	12	46	26	47	43	29	33	45	52	49

표7. 시조

2009년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져 일반론과 유형론, 작가·작품론, 가집의 발굴, 비교문학과 번역, 근대시조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시조 일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제론 쪽의 연구가 형식론 쪽의 연구에 비해 풍부한 편이다. 주제론적 연구에서는 최동국과 이민홍이 시조의 산수미에 대한 전통적 논의를 이은 한편, 김상진이 가족·사랑 등의 주제로 관심을 넓혔고, 한창훈 또한 우정을 주제로 하여 새로운 조명을 하였다. 김상진과 한창훈은 모두 요류가류를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도, 그 중 특히 가족과 우정이라는 세부 주제에 착안한 것이 흥미롭다. 가족은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문제시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우정은 18세기 실학과의 우정론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시조의 하위 유형을 대상으로 한 주제론적 연구는 양반층 시조 혹은 산수시조에서부터 대화체 시조나 여성화자 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김흥규는 양반층 시조의 시대적 추이를 논의하였는데, 그간 지속해 온 통계적 연구의 연장으로 파악된다. 양반층 시조의 주제의식 또한 18세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변화를 보인다는 결론은 연구자 자신이 고백한 바대로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 방법을 통해 재확인한 결론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에 비해 김창원과 류해춘은 해석적 방법을 중심으로 산수시조의 특성과 그 현대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산수시조는 시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기에, 그 현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시조를 살아 있는 고전으로 해석하고 전승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리라 본다. 한편, 대화체 시조의 경우에는 장시조를 대상으로 한 변승구의 연구와 『남훈태평가』를

대상으로 한 아나스타시아 구리예바의 논의가 있었다. 두 연구 모두 대화체 시조의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각 유형의 의미를 충분히 변별적으로 고찰하지는 못했다는 느낌을 준다. 마지막으로 17세기 여성화자 시조에 대한 김진희의 논의가 있었다. 이 논문은 초기 여성화자 시조가 사대부의 우의적 시조와 관련됨을 밝혀 애정시조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었다.

형식론적 연구에서는 임종찬이 운율과 문장구조 등 다방면에서 시조의 형식적 특성을 규명하였으며, 성무경이 특히 안민영과 이세보의 시조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임종찬의 논문은 시조의 형식론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현 시점에서 시조의 형식미에 대한 정치한 규명을 시도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분석의 자료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시조 일반의 형식을 논의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작가·작품론적 연구에서는 사대부 시조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 외 기생 시조나 사설시조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었다. 사대부 시조로는 정철, 신희, 권섭, 이세보와 같은 유명 작가들의 시조가 다루어졌고, 기생 시조 역시 유명한 황진이 시조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에 대하여 새로운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이형대의 논문은 정철 시조의 감성적 요소를 섬세하게 분석해낸 성과를 보였고, 성무경의 논문은 이세보 가집 전체에 대한 자료적 조망과 19세기 시가의 연행 환경에 대한 거시적 안목 속에서 이세보 시조의 특징을 설명해 내었다.

유명 작가의 작품에 대한 논의가 어렵다고 해서 무명 작가의 작품에 대한 논의가 쉬운 것은 아니다. 작가성과 시대성이 뚜렷하지 않은 무명씨 작품에 대한 연구는 그것대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에도 이영태의 논문은 시조의 연행 환경에 대한 천착과 다양한 자료의 포섭을 통해 “靑개고리 腹疾하여 주근 날 밤~”의 사설시조가 지닌 의미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내었다.

가집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가곡원류』나 『남훈태평가』 등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가집에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시조집이나 근대의 가집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 중 유명한

가집들에 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그간 가집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전개해온 신경숙은 『가곡원류』의 저본과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방대한 이본을 지닌 『가곡원류』는 아직까지도 하나의 ‘암호’로 남아 있는데, 신경숙의 논문은 『가곡원류』의 저본과 작품 수집 원리를 밝히고, 또 근대로의 영향까지도 논의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연구자가 언급한 바대로, 가곡원류계 이본의 체계적인 정리에는 이르지 못하여서 후속 논고가 기대된다. 최근 몇 년간 가집의 전승경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권순회는 일본 궁내청 소장 『가사유취』를 발굴하여 이를 『고금가곡』의 원본으로 지목하였다. 이는 마에마 전사본을 대상으로 한 윤덕진과 성무경의 논고에 이어 『고금가곡』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까지 그 작자에 대해서는 본격적 논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몇 가지 의미 있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있어서 향후 연구가 기대된다. 이상원은 『남훈태평가』의 필사본 이본들을 고찰하여,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걸친 이 가집의 영향력을 재고하였다. 장정수는 고대본 『악부』의 편찬 의식을 1852년에 편찬된 『현학금보』와의 비교를 통해 논하였는데, 방대한 가집인 『악부』의 성격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전재진은 개인 가집으로서 방대한 분량인 조황의 『삼죽사류』에 대하여 이본 현황으로부터 창작연대, 작가의 생애와의 관련성에 이르기까지 두루 살펴, 이 가집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를 꾀하였다.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은 가집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용찬은 단대본 『시조』를, 백순철은 연대본 『시조』를, 이상원은 『가조별람』을 각각 논의하였다. 가집에 대한 기초적 연구는 시가 연구를 보다 풍요롭게 할 밑바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들은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근대 이후의 가집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송안나는 육당의 활자본 편찬가집인 『시조선』을 중심으로 육당의 시조관을 새롭게 조명하였으며, 권순회는 근대 민속학자인 손진태의 작업을 통해 조선후기 가집의 유통맥락을 살폈다.

이외 비교문학론, 번역론, 근대시조론 등에 있어서도 논문이 제출되었다. 비교문학론에서는 시조의 문학성을 18~19세기의 동아시아 시론과 연관지어 논의한 이도흙의 논의가 주목된다. 비록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논의할 수는

없지만, 이는 세계문학 속에서 시조를 이해하는 데 한 방법을 제공해 주리라 고 본다. 번역론에서는 오랫동안 시조 한역의 문제에 천착해 온 김명순의 논의가 주목된다. 그는 방대한 시조 한역 자료를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분류하였는데²²⁾ 이는 향후 한역시조 연구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리라 생각된다. 한편, 조태성은 漢譯뿐만 아니라 英譯에 이르기까지 시조의 번역에 관한 논의를 폈는데, 이 역시 세계문학 속에서 시조를 논의하는데 중요한 논점을 다뤘다고 판단된다. 비록 논의가 세밀한 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후 연구의 한 방향을 제시해 준 것만은 분명하다.

근대시조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여러 편이 나왔는데, 안확의 시조론에 대한 연구, 신문 소재 시조에 대한 연구, 근대의 시조 연행과 시조 관련 문화에 관한 연구가 각각 두 편씩 제출되었다. 이 중에서도 그간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졌던 『대한민보』 소재 시조의 특성을 설명한 조해숙의 논고와 20세기 전반 라디오 프로그램에 편성된 가곡창과 시조창의 특성을 살핀 고은지의 논의는 근대 시조의 향방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혀 놓았다.

마지막으로 학위논문의 동향을 살핀다. 그간의 동향과 마찬가지로 2009년에도 시조와 가사에 대한 관심이 여느 장르보다 뜨겁다. 시조에 대한 학위 논문은 13편, 가사에 대한 학위 논문은 15편이 제출되어 풍성한 논의 정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보다 자세히 관찰하면 박사학위의 경우 시조에 대한 관심보다는 가사에 대한 관심이 더 큰 한 해였음을 알게 된다. 가사에 대한 연구가 5편, 시조에 대한 논의가 2편에 머무른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또한 시조에 대한 논의 2편은 공교롭게도 사설시조에 대한 것이어서 시조 연구분야의 最一線이 정통적 유교 이데올로기의 파악을 벗어나 점차 생활·문화사적인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6. 가사

가사 역시 시조와 같이 가장 풍부한 연구성과물을 축적해 온 장르이다.

22) 자료집은 따로 출간되었다. 김문기·김명순 편저, 『시조·가사·한역가전집』, 1~3, 태학사, 2009.

2009년에도 그 흐름은 이어졌다.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편수	4	28	9	25	21	39	34	37	23	25	25	41	47

표8. 가사

세부적인 연구 방향을 살펴보면, 작품론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형론이 그 다음을 점한다. 작품론은 주로 사대부 출신인 유명 작가의 작품을 다룬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여성 소작의 가사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이 다수 연구되었으며, 그 외 조선후기의 무명씨 가사들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유형론은 여성가사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연구자들의 오랜 관심과 활발한 활동에 기인한 것이다.

유명 작가의 작품을 다룬 경우에는 먼저 작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논의들이 눈에 띈다. 노계 <영남가>의 찬양 대상을 노계의 생애를 통해 실증적으로 추적한 이종문의 논의와, <임천별곡>의 창작 배경을 실존 인물 이여신과 작가 이운영의 관계를 통해 고찰한 이승복의 논의 등이 그것이다. 또, 김창원은 송강의 전기적 사실을 살피며 <관동별곡>의 여정에 담긴 의미를 살폈는데, 다만 전기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만을 따진 것이 아니라 ‘심상지도’라는 개념을 통해 여정의 의미를 파악한 것이 독특하다. 실증적 연구의 가장 큰 수확은 안대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간 ‘무명씨·남철(南哲)·옥선’ 등으로 알려졌던 연작가사 『승가』의 작자를 ‘남휘(南徽)·그의 小室이 된 비구니승’로 고증하여 이 노래의 구성과 전승과정을 명확히 규명했다.

한편, 실증적 연구보다는 작품 자체와 인접 장르·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보다 세밀히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만분가>에 대한 최현재의 연구와 <교주별곡>에 대한 박이정의 논의, 그리고 <만연사>에 대한 정인숙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외, 이본 연구로서 <목동문답가>의 선본을 탐색한 육민수의 연구가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18~19세기의 향촌 작가 박형덕의

<訓子姪歌>에 대한 작품론이 박연호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여성의 삶을 다룬 가사작품들에 대한 작품론이 다수 있었다. 우선, 그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온 <용부가>, <복선화음가>, <텐동어미화전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이들 작품에 대한 해석은 모두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결론은 같지 않아 흥미롭다. 길진숙은 <용부가>와 <복선화음가>의 여성상을 뽕덕어미와 함께 분석하여, 일탈적 여성에 대한 당대의 부정적 시선을 읽어내었다. 그러나 윤주필은 <복선화음가>를 대상으로, 또 박성지는 <텐동어미화전가>를 대상으로 긍정적 여성상을 파악하였다. 특히 윤주필의 논의는 방대한 이본에 대한 섭렵과 그 중에서도 우산(愚山)본에 대한 천착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주의적 시각의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한편, 만주에 망명한 여성의 가사에 대해 일련의 연구물을 제출한 고순희의 논의들이 주목된다. 고순희는 일찍이 발굴된 자료였으나 그 의미가 적극적으로 해석되지 못한 이들 가사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디아스포라의 문학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 연구 경향에 비추어 이는 흥미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유형론적 연구에서도 여성 관련 가사에 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김석희는 규방가사의 일반적인 주제론을 간명하게 제시하고 그 현대적 계승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자 스스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사의 현대화에 대한 그의 관심은 김학성의 관심과 궤를 같이 한다. 한편, 오랫동안 규방가사를 연구해 온 백순철과 이정옥의 논의가 있었다. 이정옥은 규방가사와 관련된 향유자의 실제 경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방법론적으로 신선하나, 결과의 의미가 충분히 분석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한편, 손앵화와 유정선은 화전가류를 대상으로, 최규수는 계녀가의 하위유형인 귀녀가류를 대상으로 그 여성문학적 의의를 분석해 내었다.

이외 유형론적 연구로 강호가사, 교훈가사, 조선후기 가사, 천주가사, 근대가사 등이 두루 다루어졌다. 그 중에서 교훈가사를 다룬 조규익과, 조선후기 가사를 다룬 최상은의 논의는 교훈의 어조를 중심으로 가사의 장르 성과 성격을 분석한 것인데, 이는 가사 일반의 특징이 “다정하게 말하면서도

자상하게 말하는” 어조에 있다고 본 김학성의 일반론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어는 교훈/교술/전술 등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 논의는 어조를 가사의 장르적 한 특징으로 주목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정인숙과 박애경은 각기 가사에 나타난 도시의 모습과, 근대가사의 한 유형인 혈죽가(血竹歌)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근대성과 관련된 가사의 면모를 연구하였다. 특히 박애경은 그의 오랜 관심사였던 대중성이 계몽성과 만나는 지점을 근대가사의 한 유형을 통해 흥미롭게 분석하였다. 또, 정인숙은 위의 논의 외에 남성의 자전적 술회와 관련된 가사를 연구하기도 하였는데, 여성가사에 대한 관심이 대중을 이루는 현 학계의 상황에서 남성가사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환기시킨 점에 의미가 있다. 일반론적 연구로는 김학성의 논고가 유일인데, 그는 가사의 장르적 성격을 재론하고 현대적 계승방안을 고찰하여 학계에서 오랜만의 거시적 안목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학위 논문 동향을 덧붙인다. 시조 분야 연구동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가사는 여전히 왕성한 연구적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장르가 대체적으로 유사한 편수의 결과를 제출한 가운데, 박사학위의 경우는 시조보다는 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한 해로 평가될 수 있다. 연구 관심도 비교적 균형이 잡혀 있어, 송앵화의 논문, 주원형의 논문에서 보듯 비교적 새로운 논의영역인 여성의식·천주가사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김진희의 논문과 같이 정통의 연구분야인 송강의 가사에 대한 관심까지 있어, 폭 조화로운 연구양상을 보여주었다.

2-7. 민요·잡가

민요와 잡가에 대한 논의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대체적으로 크게 많지 않다. 2007년 일시적 증가가 있었지만 이듬해 다시 예년의 편수로 되돌아왔다. 2009년의 경우 소폭 증가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편수	1	3	2	2	0	2	4	0	4	2	11	4	7

표9. 민요·잡가

근래 민요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이고 있는 서영숙의 논의는 2009년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가 이번에 주목한 것은 ‘서사민요’ 중,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22편의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 이 자료를 자신의 종전 도식²³⁾에 따라 ‘부모 - 자식 관계 서사 민요’라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향유층의 의식을 고찰하였다.

박상영 역시 ‘서사민요’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서사민요의 한 유형인 <만팔애기노래>의 유형별 구조적 특징과 그 구조에 함의된 미학적 의미를 다루었다. 이 논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만팔애기노래>의 전체적 범위를 확인하며 유형화한 데 있다. 사실 서사민요는 강한 구전성으로 인해 노랫말과 서사구조의 착종이 대단히 심한 편이다. 유형화의 성공 여부를 떠나 그 착종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풀어 나간 그 자체로 논문의 의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재남의 논의는 ‘조선후기 민요 연행의 구체적 실상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정시가의 향방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2008년에 결실을 맺은 민요자료집²⁴⁾을 활용하여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민요에 대한 관심과 인식, 그리고 그들의 한계를 짚어내고 있다. 자료의 충실한 수집이 이론화로 이어진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하겠다.

한편 프랑스인이 기록한 구한말의 민요가 소개된 점도 2009년의 민요계의 수확이다. 유춘동은 프랑스 동양어학교에 소장되어 있던 원달고가(터다지는 노래)를 영인하여 학계에 소개하였다. 현전하는 민요는 거의가 20세기 초반을 거치며 상당히 윤색된 것이란 점에서 ‘원형적 아쉬움’을 지니고 있었던 바, 이 노래는 19세기 말 직접 채록하여 당대의 형식과 내용을 담고

23) 근래 서영숙의 논의는 이전(서영숙, 『우리민요의 세계』, 역락, 2002)에 제시한 52개의 유형에 따라 하나씩 전개되고 있다.

24) 최재남 외, 『문집소재 조선후기 민요자료 정리와 분류』, 보고사, 2008.

있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미가 크다.

민요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은 2009년 나오지 않았으며 잡가의 패러디 양상을 주제로 한 석사학위논문이 1편 제출되었다. 아직 잡가가 시가의 주요 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황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2-8. 교육

교육은 엄밀한 의미에서 제2장의 장르적 분류체계로는 적당하지 않다. 하지만 교육은 위의 논의들과는 달리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이라는 특징이 뚜렷한 바, 따로 분류하여 동향을 다룬다.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편수	0	0	6	3	3	3	3	0	1	8	3	11	16

표10. 교육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고전문학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고 있음을 대체적으로 지적하는 가운데,²⁵⁾ 그 국면의 타개를 위한 노력이었을까,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교육관련 논문편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교육관련 논문이 가장 충실히 조사되었던 1999년에 비해 볼 때 최근 2년간의 연구편수는 2-3배에 이른다.

임주탁은 원활한 고전교육을 위하여 무엇보다 연구·교육주체의 분발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언어텍스트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담은 연구결과 도출, 교과서를 제작하는 이의 비판적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학생들과의 소통이 원활해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현재 고전연구와 고전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일면을 지적한 말이 아닐까 한다.²⁶⁾

25) 임주탁, 고정희, 고정화, 정기철 등의 논의가 이런 현실에 대한 언급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26) 연구와 교육의 원활한 소통에 대한 필요성은 엄은렬(『고전시가 연구 및 고전시가 교육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제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12.)에 의해서도 제기되어 있다.

고정희는 보다 온전한 입장에서 고전교육의 개선을 논하였다. 현재 지나치게 서울 중심으로 정전화된 시조작품에 대한 대안으로 『흥비부』의 작품을 제시했다. 『흥비부』에 드러난 지방색과 대중성, 그리고 그러한 변모를 하는 과정의 창작성이 학생들에게 ‘정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현대에 맞게 시조를 즐길 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고영화 역시 교육현장에서의 개선방안을 논했다. ‘의미성·실용성·흥미성’을 중심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외 정기철, 송지언 등도 시조 교육을 통한 청소년기의 정서교육에 대한 흥미로운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가 시조와 관련한 것과 달리 박경주는 경기체가가 가진 형식미와 창작원리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작품 창작교육’과 ‘언어활용능력’ 계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진지한 논의들은 앞서도 말했듯이 현재의 고전문학교육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한 데서 나온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2009의 논의들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한다. 바로 김석희²⁷⁾가 지적한 다음 과제에 대한 논의이다.

작품에 투영된 시대사회적인 과제를 확인하고 작가의 관심이나 고뇌를 구명해 내기, 학습독자의 삶과 현실적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숨은 번민이나 열망을 이끌어내기, 그리고 작품과 학습독자 사이에 會通의 다리를 놓기 위한 학습설계를 구안해 내기 등 무수한 과제들이 교사와 연구자를 기다리고 있다.

필자 역시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담당하고 있고, 고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민한 바 있다.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확실히 위의 인용문이 권유한 ‘역사적 사실과 결부시켜 설명해 주기’였다. 문학이란 기본적으로 역사의 강에 핀 꽃과 같은 것이고 역사의 강물이 급하게 흐르거나 굽어 흐르거나에 따라 꽃의 발육과 색채가 달라진다. 향기는

27) 김석희, 「고전시가 연구와 교육의 전망」, 『고전문학과 교육』 제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12.

신라의 엄숙한 종교의 강가에서 피어난 꽃이고, 고려가요는 환란으로 가득 했던 현실의 강가에서 피어난 꽃이다. 시조는 유교질서의 강가에서 피어났고, 임진왜란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점차 세속적 색채로 변모한 꽃이다. 그 점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점과 연관되는 현재의 모습과 고민을 연결시킬 때 가장 좋은 호응을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향후에는 김석희의 이러한 제안에 대한 논의도 연구동향의 한 흐름이 되어 있기를 기대한다.

2-9. 장르통섭

2003년 박노준이 編한 『고전시가 읽어읽기』²⁸⁾로 촉발된 장르통섭²⁹⁾적인 논의는 2009년에도 여전히 호황이었다. 흐름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편수	4	14	10	13	14	19	34	22	11	29	12	31	22

표11. 장르통섭

향가의 장르통섭적 연구는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다. 대상 작품이 더 이상 확충될 가망이 거의 없다는 점, 조금씩 보조 자료가 발굴되긴 하나 여전히 해독의 진전은 더디다는 점, 따라서 장르 내에서의 논의가 차차 한계에 도달해가고 있다는 점 등에서 타장르와의 연계가 어느 장르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 정황은 2009년의 연구동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총 22편의 실적 중, 4편의 장르통섭 연구가 향가를 중심으로 제출되었다.

서철원의 ‘향가와 엘리엇 읽어읽기’, 이연숙의 ‘향가와 만엽집 비교하기’, 이윤선의 ‘향가 처용가와 고려가요 처용가의 인물 상관성 연구’, 최정선의 ‘향가와 찬시와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는 모두가 향가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들이었다.

28)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읽기』, 태학사, 2003.

29) 본고에서는 ‘두 장르 이상을 아우르는 논의’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즉, 비교문학·소재론·율격론·작가론과 등과 같이 한 장르에 국한해서는 풀리기 어려운 것에 대한 논의를 일컫는다. 아래의 12년간 통계도 그것에 기준해 분류했다.

장르별 엮어읽기의 또다른 시도는 ‘가사’와 ‘부(賦)’, ‘경기체가’와 ‘시조’ 부문에서도 행해졌다. 구봉곤의 논문은 <우부가>와 <후와명부(後蛙鳴賦)>의 비교를 통해 그 양식적 유사성을 논한 것이고, 하윤섭의 논문은 경기체가 <오륜가>와 시조 <오륜가>의 장르적 상이성(相異性)을 논한 결과물이다. 전자는 장르적 유사성을 논하기에는 비교 대상의 폭이 좁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학계의 일각에서 여전히 부(賦)와 가사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 경기체가 <오륜가>는 시조보다는 악장 쪽의 가치관을 더 반영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鮮初 문학에 대한 미시적 전망을 밝게 해 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소재적인 측면의 장르적 통섭을 살핀 논문들도 제출되었다. 김완성의 ‘달’, 박춘우의 ‘꽃’, 정인숙의 ‘도시적 삶’, 김월덕의 ‘농경문화’ 등은 일정한 소재를 중심으로 장르를 넘나드는 관찰을 하며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정인숙은 시가에 나타난 도시문화의 양상을 2009년에 삼연작으로 제출함으로써 근간의 연구자³⁰⁾들이 시도하였던 ‘문화와 문학’의 관련양상을 성공적으로 확산해 내고 있다.

성호경은 두 편의 연속 논문을 통하여 조선후기 평민시가의 특성을 재고찰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관심은 ‘주제’적인 측면보다는 ‘소재’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통속적 체험을 통하여 재미를 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기존의 다수 학자들이 있다고 믿었던 ‘조선 후기 시가의 근대성’에 대한 진지한 재론이기에 향후 논쟁 방향이 기대된다.

30) 박애경(『조선후기 시종 나타난 도시와 도시적 삶』, 『시조학논총』 16, 한국시조학회, 2000.), 이도흠(『18-19세기 가사에서 상품화폐경제에 대한 태도 유형』,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등의 후속 논의에 속한다.

3. 결론

본고의 목적은 2009년에 발표된 고전시가관련 논문들을 살펴 연구사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최근 12년간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범위를 확정하였고, 장르별 연구편수도 도표로 제시하여 향후 지속될 연구동향 기술에 편의를 주고자 하였다. 이와, 그 후 살핀 2장의 내용 동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2009년에 고전시가분야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였던 장르는 예년과 다름없이 시조·가사였다. 거의 매해 제출 논문의 50%이상을 점해오고 있으며 2009년도 그 동향을 이어갔다. 이 장르의 내용동향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예년에 비해 원자료의 발굴과 소개가 왕성해졌다는 점, 여성관련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근대성’에 대한 고민이 반성적으로 일고 있었다는 점이다.

2. 향가의 연구 편수는 급감했고, 고려가요의 연구 편수는 급증하였다. 그러나 반감의 주요 원인이 그간 연구를 주도했던 연구자들이 2007-2008년 간에 관련연구를 일단락 짓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점, 급증의 원인이 비전공자들의 ‘학문적 외출’에 의한 것임을 볼 때 지속성을 지닌 동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 동향으로 주목할 점은 여전히 어석의 적절성에 따라 논문의 가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장르통섭을 시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 역사적 고증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 그간 비교적 연구가 소홀했던 고대가요·경기체가·약장·민요 중, 약장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노래가 가진 장르적 중요성이나 새로운 연구자들의 등장으로 보나 향후 연구편수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대체적으로 고전교육의 위기감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전교육’ 관련 논문들이 급증하였다. 시조를 대상으로 교육의 개선을 도모하는 경향이 강하나, 작품의 배경이 된 시대와 사회의 고뇌·열망을 함께 제시하자는 제안도 함께 나타났다.

참고문헌

고전시가수록 학술지 목록³¹⁾

등재지(67종)

- 『고시가연구』 제23·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6·12. [16]³²⁾
- 『고전문학과 교육』 제17·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구, 청관고전문학회), 2009. 6·12. [8]
- 『고전문학연구』 제35·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6·12. [7]
- 『구결연구』 제22·23집, 구결학회, 2009. 2·8. [0]
- 『국문학연구』 제19·20호, 국문학회, 2009. 5·11. [4]
- 『국어교육』 128·129·130호, 한국어교육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9. 2·6·10. [0]
- 『국어국문학』 제151·152·153집, 국어국문학회, 2009. 5·9·12. [2]
- 『국어학』 54·55·56집, 국어학회, 2009. 4·8·12. [0]
- 『국제어문』 45·46·47, 국제어문학회, 2009.4·8·12. [2]
- 『대동문화연구』 제65·66·67·6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3·6·9·12. [0]
- 『대동한문학』 제30집, 대동한문학회(구, 교남한문학회), 2009. 6. [0]
- 『동방학지』 제145·146·147·148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3·6·9·12. [3]
- 『동서비교문학저널』 통권20·21호,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09. 6·12. [0]
- 『동아시아고대학』 19·20, 동아시아고대학회, 2009. 6·12. [0]
- 『동양고전연구』 34·35·36·37, 동양고전학회, 2009. 3·6·9·12. [0]
- 『동양학』 제45·46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9. 2·8. [0]
- 『동양한문학연구』 제28·29집, 동양한문학회, 2009. 2·8. [0]
- 『문학교육학』 28·29·30,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4·8·12. [2]
- 『민족문학사연구』 통권39·40·41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 4·8·12. [1]
- 『민족문화논총』 41·42·43,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9. 4·8·12. [0]
- 『민족문화연구』 50·51,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9. 6·12 [2]
- 『민족문화』 33·34, 고전번역원, 2009. 6·12. [1]
- 『반교어문연구』 제26·27집, 반교어문학회, 2009. 2·8. [7]
- 『배달말』 44·45, 배달말학회, 2009. 6·12. [1]

31) 『국문학연구』 시가문학 분야 연구동향에서 다루었던 총목록, []속은 수록편수.

- 『비교문학』 제47·48·49집, 한국비교문학회, 2009. 2·6·10. [1]
- 『새국어교육』 제81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4. [1]
- 『서울학연구』 제34·35·36·37집,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2009. 봄·여름·가을·겨울. [0]
- 『세계문학비교연구』 제26·27·28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09. 3·6·9. [1]
- 『시조학논총』 제30·31집, 한국시조학회, 2009. 1·7. [19]
- 『신라문화』 제33·34집,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 2009. 2·8. [0]
- 『어문논집』 제59·60집, 민족어문학회(구 안암어문학회), 2009. 4·10. [3]
- 『어문논총』 제50·51집, 한국문학언어학회(구, 경북언어학회), 2009. 6·12. [1]
- 『어문연구』 제37권 1·2·3·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봄·여름·가을·겨울. [4]
- 『어문연구』(구, 한국어문학연구)제 59·60·61·62, 어문연구학회, 2009. 3·6·9·12. [4]
- 『어문학』 제103·104·105·106집, 한국어문학회, 2009. 3·6·9·12. [5]
- 『여성문학연구』 통권 2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6. [0]
- 『열상고전연구』 제29·30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6·12. [0]
- 『온지논총』 제21·22·23집, 온지학회, 2009. 1·5·9. [2]
- 『우리말글』 제45·46·47집, 우리말글학회, 2009. 4. [3]
- 『우리문학연구』 제26·27·28집, 우리문학회, 2009. 2·6·10. [0]
- 『우리어문연구』 제33·34·35집, 우리어문학회, 2009. 1·5·9. [3]
- 『인문연구』 제56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0]
- 『정신문화연구』 제32권 1·2·3·4호,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9. 봄·여름·가을·겨울. [0]
- 『진단학보』 제107호, 진단학회, 2009. 6. [0]
- 『청람어문교육』 제39·40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9. 6·12. [0]
- 『텍스트언어학』 제26·27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9. 6·12. [0]
-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42·43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9. 2·8. [0]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1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6·12. [3]
- 『한국고전연구』 제19·2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6·12. [4]
- 『한국극예술연구』 제29·30집, 한국극예술학회, 2009. 4·10. [0]
-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8·29·30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9. 4·8·12. [1]
- 『한국문학논총』 제51·52·53집, 한국문학회, 2009. 4·8·12. [2]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4·4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9·12. [0]
- 『한국문화』 제45·46·47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3·6·9. [0]
- 『한국민요학』 제25·26·27집, 한국민요학회, 2009. 4·8·12. [0]
- 『한국민족문화』 제33·34·3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3·7·11. [1]
- 『한국사상과 문화』 제46·47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1·9. [1]

『한국시가연구』 제26·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5·11. [24]
 『한국언어문학』 제68·69·70·71, 한국언어문학회, 2009. 3·6·9·12. [3]
 『한국음악사학보』 제42·43집, 한국음악사학회, 2009. 6·12. [1]
 『한국학논집』 제38·39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6·12. [0]
 『한국한시연구』 제17집, 한국한시학회, 2009. [0]
 『한말연구』 제24·25집, 한말연구학회, 2009. 6·12. [0]
 『한민족문화연구』 제28·29·30·31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2·5·8·11. [2]
 『한민족어문학』(구, 영남어문학) 제54·5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9. 6·12. [7]
 『한중인문학연구』 제26·27·28집, 한중인문학회, 2009. 4·8·12. [0]
 『현상과 인식』 통권 33 1·2·3·4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9. 봄·여름·가을·겨울. [0]

등재 후보지 (17종)

『개신어문연구』 제29·30집, 개신어문학회, 2009.6·12 [1]
 『겨레어문학』 제42·43집, 겨레어문학회(구, 건국어문학), 2009. [0]
 『고전과 해석』 제6·7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9. 4·10. [2]
 『국어교육연구』 제23·24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9. 6·12. [3]
 『국어교육연구』 제44·45집, 국어교육학회, 2009. 2·8. [1]
 『국어문학』 제46·47집, 국어문학회, 2009.³³⁾ [2]
 『돈암어문학』 제22집, 돈암어문학회, 2009. 12. [0]
 『동방학』 제16·17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4·10. [2]
 『동아시아문화연구』(구, 한국학논집) 제45·46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국학연구소), 2009, 5·11. [0]
 『동아인문학』(구 모산학보) 제15·16권, 동아인문학회, 2009.6·12. [0]
 『문학과환경』, 문학과환경학회. [0]
 『문학치료연구』, 한국문학치료학회. [0]
 『어문논집』 제40·41·42집, 중앙어문학회, 2009. 3·9·12. [2]
 『인문과학』 제43·44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2·8. [1]
 『인문학연구』 제77·78집,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6·12. [0]
 『정토학연구』 12집, 한국정토학회, 2009. [0]
 『한국어문학연구』(구, 동악어문논집) 제52·53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9. 2·8. [1]

33) 2010. 2월에 등재후보 자격 소멸예정.

비등재지(63종³⁴⁾)

- 『경상어문』 제15집, 경상어문학회, 2009.8. [1]
 『경원어문논집』, 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
 『경희어문집』,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8년 이후 미간]
 『관악어문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9년 미발행]
 『국문학논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9년 미간행]
 『국민어문연구』,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0]
 『국어교과교육연구』, 국어교과교육학회. [2007년 이후 미간]
 『국어교육연구』 제10집, 인하국어교육학회, 2009. 12. [0]
 『국어국문학』 제46집,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9. 12. [0]
 『국제문화연구』,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폐간]
 『기전어문학』,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9년 미간]
 『논문집』, 공군사관학교. [2004년 이후 미간]
 『논문집』,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미간]
 『논문집』, 성결대학교 인문사회과학편.[0]
 『논문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0]
 『단국어문논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9년 미간]
 『덕성어문학』,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9년 미간]
 『덕성여대논문집』, 덕성여자대학교. [RISS 확인, 2008년까지만 됨]
 『동방고전문학연구』, 동방고전문학회. [폐간]
 『동양예학』 제21·22집, 동양예학회, 2009. 6·12. [0]
 『문학과교육』, 문학과교육학회(구, 문학과교육연구회). [2001년 폐간]
 『문학과언어』 제31집, 문학과언어학회, 2009. 5. [1]
 『문헌과해석』 46·47·48·49호, 문헌과해석사, 2009. 3·6·9·01, [0]
 『배달말교육』 제30집, 배달말교육학회, 2009. 3. [0]
 『백록어문』, 백록어문학회. [폐간]
 『사대논집』,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폐간]
 『사립어문연구』 19, 창원대학교 사립어문학회, 2009. 12. [1]
 『성균어문연구』 성균관대학교. [0]

34) 최근 12년간의 연구동향에 목록을 올린 학술지라 하더라도 문학잡지 혹은 학술적 성격이 거의 없는 다음 - 『문학마당』(문학마당[폐간]), 『시와시학』(시와시학사), 『시조문학』(시조문학사), 『시조세계』(시조세계사), 『유심』(만해사상실천선양회), 『자유문학』(자유문학), 『장안논총』(장안대학), 『제3의 문학』(제3의 문학회), 『한국학보』(일지사[폐간]), 『해동문학』(해동문학사) -은 제외하였다.

- 『성심어문논집』, 성심어문학회(구,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확인 필요). [2006년 이후 미발간]
- 『세종학연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년 이후 미발간]
- 『수련어문논집』, 수련어문학회. [2004년 이후 미발간]
- 『숙명어문논집』, 숙명어문학회. [0]
- 『순천향어문논집』, 순천향어문학회. [2002년 이후 미발간]
- 『송실어문』 제23호, 송실어문학회, 2009. 6. [0]
- 『어문학교육』(구, 국어과교육) 제38·39집, 부산국어교육학회 2009. 5·11월 38·39집. [0]
- 『어문학논총』 제28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9. 2. [1]
- 『어문학보』,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0]
- 『언어학연구』 제14·15호, 한국중원언어학회, 2009. 5·11. [0]
- 『연민학지』 제12집, 연민학회, 2009. 8. [1]
- 『연세어문학』,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간]
- 『외대논총』 제35집, 부산외국어대학교, 2009. 2. [0]
- 『용연어문논집』, 경성대학교 용연어문학회. [0]
- 『울산어문논집』,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정간]
- 『울곡학』, 울곡사상연구원. [정간]
- 『이화어문논집』 제27집, 이화어문학회, 2009. 12. [1]
- 『인문과학논문집』 제46권,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2. [0]
- 『인문과학논집』, 청주대학교학술연구소. [0]
- 『인문과학논총』, 성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0]
- 『인문과학연구』(구, 『인문예술논총』) 제33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2. [1]
- 『인문학연구』,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0]
- 『인문학연구』,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0]
- 『인천어문연구』, 인천어문학회. [0]
- 『인하어문연구』, 인하대학교 어문연구회. [0]
- 『전농어문연구』 제21집,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9. 2. [0]
- 『진리논단』 17집, 백석대학교(구, 천안대학), 2009. [0]
- 『청대학술논집』, 청주대 학술연구소. [0]
- 『한국문학연구』 제36·3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6·12. [1]
- 『한국어문교육』 제19·20집,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9. 6·11. [0]
- 『한국한시작가연구』 제13집, 한국한시학회, 2009. 2. [1]
- 『한남어문학』,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0]
- 『한성어문학』 제28호,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9. 8. [0]
- 『한어문교육』 제20·21집, 한국어어문학교육학회, 2009. 6·12. [2]

1. 고대가요(3)

- 구사회, 「주제발표논문: <공무도하가>의 가요적 성격과 디아스포라」, 『한민족문화연구』 31, 한민족문화학회, 2009. 11.
- 이영태, 「「황조가」 해석의 다양성과 가능성」, 『국어국문학』 제151호, 국어국문학회, 2009. 5.
- 임재욱, 「<龜旨歌>에 나타난 신격에 대한 이중적 태도의 이해」, 『국문학연구』 제19호, 국문학회, 2009. 5.

2. 향가(12)

- 고창운, 「<경주 불교 문예의 재조명>; 신라 향가의 활용 형태 연구」, 『온지논총』 23, 온지학회, 2009.
- 김진희,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와 <찬기과랑가(讚耆婆郎歌)>의 송도적(頌禱的) 서정성에 대하여(Ⅰ)」, 『국문학연구』 제20호, 국문학회, 2009. 11.
- 류병운, 「<서동요(薯童謠)>의 형성과정」, 『고시가연구』 제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12.
- 류병운, 「향가와 토속적 종교사상」, 『한어문교육』 제20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9. 6
- 박용식, 「기획 주제 논문: 향가의 구비문학성에 대한 국어사적 고찰」, 『배달말』 45, 배달말학회, 2009.
- 박재민, 「<獻花歌> 解讀 再考」, 『국문학연구』 제19호, 국문학회, 2009. 5.
- 박재민, 「<怨歌>의 재해독과 문학적 해석」, 『민족문화』 제34권, 한국고전번역원, 2009.12.
- 서철원, 「신라(新羅) 문학사상(文學思想)의 전개와 고전시가사(古典詩歌史)의 관련 양상」, 『고전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6.
- 양희철, 「「薯童謠」의 重義的 表現과 세 詩的 聽者의 解釋」, 『어문연구』 37호 No. 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 엄국현, 「<풍요>의 해석학적 연구」, 『한국민족문화』 33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이승남, 「수로부인은 어떻게 아름다웠나-삼국유사 수로부인조의 서사적 의미소통과 현화가의 함의」, 『한국문학연구』 3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12.

황병익, 「<도천수대비가(禱千手大悲歌)>의 재해석 -“일등사은사이고지내호질등사(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5.

3. 고려가요(12)

김금남, 「<怨詞>와 관련한 <가시리> 生成動因, 『어문논집』 제40집, 중앙어문학회, 2009. 3.

김창원, 「고려시대 “평양”이라는 공간의 탄생과 고려가요의 서정, 『국제어문』 47집, 국제어문학회, 2009.

여기현, 「<정과정>의 향유 양상과 “접동새”의 문학적 변용, 『반교어문연구』 제27집, 반교어문학회, 2009. 8.

이병찬, 「고려가요의 자연 표상, 『반교어문연구』 제26집, 반교어문학회, 2009. 2.

이영태, 「「동동」 화자의 심리, 『민족문학사연구』 통권39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 4.

이정선, 「<서경별곡(西京別曲)>의 창작 배경을 통해 본 신(新)해석,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11.

이종숙, 「한국(韓國)의문화(文化): 관상(觀相)으로 본 『악학궤범』의 처용(處容) 형상, 『한국사상과 문화』 46,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임재욱, 「11·12월 노래에 나타난 <동동(動動)> 화자의 정서적 변화, 『고전문학연구』 제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12.

장성진, 「고전문학: 고려 속요 서사(序詞)의 송도적 기능, 『사립어문연구』 19, 사립어문학회, 2009.

조용호, 「「이상곡(履霜曲)」의 의미와 음사적(淫辭的) 성격, 『동방학지』 제148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12.

황보관, 「<쌍화점(雙花店)>의 시상구조와 소재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제1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6.

문숙희, 「『시용향악보』 대국1,2,3과 구천 그리고 별대왕의 리듬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42, 한국음악사학회, 2009.

4. 경기체가(1)

변유유, 「<한림별곡>에 미친 송사의 영향, 『한민족어문학』 55, 한민족어문학회, 2009.

5. 악장(8)

- 김세중, 「세종대 <용비어천가>의 창제배경과 음악화 과정 연구」, 『고시가연구』 제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12.
- 김승우, 「세종조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보수(補修)의 정황과 실상」, 『어문논집』 제59집, 민족어문학회, 2009. 4.
- 김승우, 「<용비어천가>의 제작 기반 연구」, 『민족문화연구』 51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12.
- 임주탁, 「명칭가곡(名稱歌曲) 수용의 양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51집, 한국문학학회, 2009.
- 정소연, 「<악장가사> 所在 작품의 표기방식원리 연구(1)」, 『어문학』 103, 한국어문학회, 2009.
- 정소연, 「한문과 국문의 표기방식 선택과 시적화자·발화 대상의 상관성 연구-『악학궤범』 및 『악장가사』 소재 현토가요와 국문가요를 중심으로-」, 『어문학』 106, 한국어문학회, 2009.
- 정소연,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비교연구-양층언어현상(Diglossia)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33집, 우리어문학회, 2009. 1.
- 조규익, 「<창수지곡(創守之曲)>과 <경근지곡(敬勤之曲)>의 악장사적(樂章史的) 의미」, 『온지논총』 23, 온지학회, 2009.

6. 시조(49)

- 강정구, 「근대계몽기 시조에 나타난 시간성 연구 -『대한매일신보』의 「사조(詞藻)」란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29, 세계문학비교학회, 2009.
- 고은지, 「경성방송국 프로그램에 기록된 20세기 “시조예술”의 연행 양상과 특징」,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5.
- 권순희, 「『고금가곡(古今歌曲)』의 원본 발굴과 전사(轉寫) 경로」, 『우리어문연구』 제34집, 우리어문학회, 2009. 5.
- 권순희, 「기획특집 : 조선 후기 가집의 유통사적 맥락 ; 남창(南滄) 손진태(孫晉泰)의 가집(歌集) 전사(轉寫)와 『조선고가요집(朝鮮古歌謠集)』 편찬」, 『한민족어문학』 54, 한민족어문학회, 2009.
- 김명순, 「시조 한역 자료의 현황과 그 성격」, 『시조학논총』 제30집, 한국시조학회, 2009. 1.
- 김명희, 「시조문학과 신선」, 『시조학논총』 제30집, 한국시조학회, 2009. 1.

- 김상진, 「시조 속에 나타난 가족과 가족윤리-16, 17세기 훈민시조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6.
- 김상진, 「시조에 나타난 사랑의 정의와 그 형상」, 『시조학논총』 제31집, 한국시조학회, 2009. 7.
- 김성문, 「黃眞伊 時調의 離別 形象化와 對應樣相」, 『시조학논총』 제30집, 한국시조학회, 2009. 1.
- 김성수, 「시조의 재검토」, 『한어문교육』 제21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9. 12.
- 김옥천, 「耳溪 洪良浩의 時調 漢譯詩 考察」, 『이화어문논집』, 27, 이화어문학회, 2009.
- 김용찬, 「<시조(詩調)>(단대본)의 문헌적 성격과 수록 작품의 양상」, 『고전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6.
- 김정화, 「시조의 이백 시 수용에 관한 고찰」, 『어문학』 105, 한국어문학회, 2009.
- 김진희, 「17세기 여성화자 시조의 문학적 특성 연구-규원시(閨怨詩)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5.
- 김창원, 「왜, 다시 산수시조인가?」, 『시조학논총』 제31집, 한국시조학회, 2009. 7.
- 김홍규, 「16-19세기 양반층 시조와 그 심상공간(心象空間)의 변모」,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5.
- 남정희, 「『月先軒十六景歌』의 江湖 공간과 시적 형상화의 의미」, 『어문연구』 37호 No.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 류해춘, 「산수시조에 나타난 여가활동의 양상」, 『시조학논총』 제31집, 한국시조학회, 2009. 7.
- 박규홍, 「이세보(李世輔)의 애정시조(愛情時調)와 가집편찬(歌集編纂) 문제(問題)」, 『한민족어문학』 55, 한민족어문학회, 2009.
- 백순철, 「조선후기 가집의 유통사적 맥락: 『시조집(연대본)』의 체제와 수록작품의 특징」, 『한민족어문학』 54, 한민족어문학회, 2009.
- 변승구, 「대화체 장시조의 유형과 의미」, 『어문연구』 60, 어문연구학회, 2009.
- 성무경, 「19세기 축적적 문학담론과 이세보(李世輔) 시조(時調)의 작시법」,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11.
- 송안나, 「20세기 초 활자본 가집 『가곡선』의 편찬 특징과 육당의 시조 인식」, 『반교어문연구』 제27집, 반교어문학회, 2009. 8.
- 신경숙, 「19세기 서울 우대의 가곡집, 『가곡원류』」, 『고전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6.(기획주제: 조선후기 서울지역의 문학과 도시문화사)
- 신경숙, 「조선후기 가집의 유통사적 맥락: 가곡원류 편찬 연대 재고」, 『한민족어문학』 54, 한민족어문학회, 2009.

- 아나스타시아 구리예바, 「조선후기의 대화구성법 시조 -『남훈태평가』가집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9.
- 오선주, 「辛啓榮, 『田園四時歌』의 표현 틀과 의미구조」, 『시조학논총』 제31집, 한국시조학회, 2009. 7.
- 이민홍, 「山水와 時調學, 그리고 性情美學」, 『시조학논총』 제31집, 한국시조학회, 2009. 7.
- 이상원, 「『남훈태평가』의 필사본 유통 양상」,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11.
- 이상원, 「기획특집: 조선후기 가집의 유통사적 맥락: 『가조별람』의 문헌적 특성과 『시가』와의 관계」, 『한민족어문학』 54, 한민족어문학회, 2009.
- 이영태, 「불구동물 등장 시조와 “靑개고리 腹疾하여 주근 날 밤~”의 해석」, 『시조학논총』 제30집, 한국시조학회, 2009. 1.
- 이형대, 「정철 시조의 감정 표현 양상」,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11.
- 장정수, 「『樂府 高大本』 소개 <樂府>와 『玄鶴琴譜』 <歌曲>의 관련 양상」, 『시조학논총』 제31집, 한국시조학회, 2009. 7.
- 전재강, 「권섭 시조에 나타난 山水의 다층적 성격」, 『시조학논총』 제31집, 한국시조학회, 2009. 7.
- 전재진, 「삼죽(三竹) 조항(趙攄)의 유가사업(儒家事業)과 가곡집(歌曲集) 『삼죽사유(三竹詞流)』」, 『동방학지』 제148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12.
- 조성진, 「신흙 시조의 성격과 그 일신의 면모」, 『국문학연구』 제20호, 국문학회, 2009. 11.
- 조유미, 「『고산유고(孤山遺稿)』를 통해 본 윤선도의 거문고 인식」, 『인문과학』 44,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조유영, 「가투(歌鬪)의 시조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시조학논총』 제31집, 한국시조학회, 2009. 7.
- 조해숙, 「『대한민보(大韓民報)』 시조에 나타난 계몽기 시가의 전환과 대응 양상 (1) -매체 변화와 내용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5.
- 한창훈, 「조선 시대 <오륜가>에 나타난 ‘우정’에 대한 인식과 그 양상」, 『고전과 해석』 제7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9. 10.
- 배은희, 「자산 안확의 시조론 연구」, 『시조학논총』 제30집, 한국시조학회, 2009. 1.
- 성무경, 「평시조(단시조)의 형식과 그 운용의 미학」, 『반교어문연구』 제27집, 반교어문학회, 2009. 8.

- 이도흙, 「18~19세기 동아시아 시론의 변모 양상과 시조의 실제」, 『고전문학연구』 제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12.
- 임종찬, 「다각적 관점에서 본 시조 형식 연구」, 『시조학논총』 제30집, 한국시조학회, 2009. 1.
- 조규익, 「안자산의 시조론에 대하여」, 『시조학논총』 제30집, 한국시조학회, 2009. 1.
- 조홍욱, 「시조에 나타난 인물 형상화 방식 연구-평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8,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9.
- 최동국, 「時調에 나타난 山水自然의 遠望과 그 美的 性格」, 『시조학논총』 제30집, 한국시조학회, 2009. 1.
- 최홍열, 「艸丁 金相沃 時調에 나타난 自然觀」, 『시조학논총』 제30집, 한국시조학회, 2009. 1.
- 조태성, 「시조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시론」, 『시조학논총』 제31집, 한국시조학회, 2009. 7.

7. 가사(47)

- 강연임, 「〈노처녀가〉를 통해 본 근대국어의 텍스트언어학적 특징」, 『어문연구』 61, 어문연구학회, 2009.
- 고순희,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위모사>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6.
- 고순희, 「만주망명 여성의 가사 <원별가라> 연구」, 『국어국문학』 제151호, 국어국문학회, 2009. 5.
- 고순희, 「민주 동포 귀환가: <일오전쟁회고가>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5.
- 권순희, 「『玉屑華談』의 疏通 樣相과 通俗性」, 『어문연구』 37호 No.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 길진숙, 「뽕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일탈과 그 성격 -〈용부가〉, 〈복선화음가〉, 〈심청가〉의 일탈형 여성인물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제1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6.
- 김석희, 「주제적 관심을 통해 본 규방가사의 세계」, 『고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학회, 2009. 6.
- 김신기, 「홍만종의 장가 논평문 고찰」, 『어문연구』 59, 어문연구학회, 2009.
- 김신중, 「〈완산가〉의 전승과 변이 고찰」, 『고시가연구』 제24집, 한국고시가학회, 2009. 12.
- 김은희, 「〈한양가〉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 『반교어문연구』 제26집, 반교어문학

- 회, 2009. 2.
- 김은희, 「농가월령가의 짜임새와 그 의미」, 『어문연구』 37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 김주순,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 시(詩)에 나타난 도연명(陶淵明)의 수용양상(受容樣相)」, 『고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6.
- 김학성, 「가사 양식의 전통 유형과 계승방향」, 『고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6.
- 김창원, 「<관동별곡(關東別曲)>의 관찰사 여정과 심상지리」,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11.
- 박성지, 「<텐둥어미화전가>에 나타난 욕망의 시간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12.
- 박수진, 「<관서별곡>에 나타난 공간 인식」, 『동방학』 제16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4.
- 박애경, 「민중정공 담론과 <혈죽가>류 시가 연구」, 『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회, 2009.
- 박연호, 「<訓子姪歌>와 조선후기 향촌교육의 지향」, 『개신어문연구』 30, 개신어문학회, 2009.
- 박이정, 「구강(具康) <교주별곡(交州別曲)>의 특징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11.
- 백순철,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가족인식」, 『한민족문화연구』 27, 한민족문화학회, 2009.
- 손대현, 「누항사의 서술 양상과 의미」, 『어문학』 105, 한국어문학회, 2009.
- 손영화, 「관계를 통해 본 <우부가(愚夫歌)>의 의미지향 -등장인물 간의 관계와 텍스트 통합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11.
- 손영화, 「화전놀이 속의 ‘몸짓’과 의미맥락 연구-화전가류의 연행 기반을 중심으로-」, 『고전과해석』 제6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9. 4.
- 손종흠, 「강호가사(江湖歌辭)의 전통(傳統)과 계승방향(繼承方向)」, 『고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6.
- 안대회, 「연작가사 『승가(僧歌)』의 작자와 작품성격」,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5.
- 양희찬, 「<속미인곡(續美人曲)>의 진면목(眞面目)」, 『고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6.
- 유정선, 「화전가에 나타난 여성의 놀이 공간과 놀이적 성격-“음식”과 “술”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1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6.
- 유육례, 「정극인의 시가에 드러난 자연시 연구」, 『고시가연구』 제24집, 한국고시가

- 문학회, 2009. 12.
- 육민수, 「<목동문답가> 창작 시기 및 이본의 실현 양상」, 『반교어문연구』 제26집, 반교어문학회, 2009. 2.
- 윤주필, 「우산본 <복선화음록>의 특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6.
- 이승복, 「<순창가>의 서술방식과 작가의식」, 『고전문학과 교육』 제1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6.
- 이승복, 「<임천별곡>의 창작 배경과 갈등의 성격」, 『고전문학과 교육』 제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12.
- 이임수, 「<역대전리가>와 형성기의 가사문학 고」, 『우리말글』 47, 우리말글학회, 2009.
- 이정옥, 「내방가사 향유자의 생애경험」, 『고시가연구』 제24집, 한국고시가학회, 2009. 12.
- 이종문, 「노계(蘆溪) 「영남가(嶺南歌)」의 찬양(讚揚) 대상(對象) 인물(人物)에 대한 고찰(考察)」, 『어문논집』 제59집, 민족어문학회, 2009. 4.
- 정무룡, 「<면양정가> 연구」, 『한민족어문학』 54, 한민족어문학회, 2009.
- 정인숙, 「19세기~20세기 초 가사에 나타난 근대 도시 공간의 소비와 유희」,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11.
- 정인숙, 「가사 장르를 통해 본 남성의 자전적 슬회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12.
- 정인숙, 「연작가사 만연사의 특징과 증인층 작가의 의미 지향」, 『한국언어문학』 69, 한국언어문학회, 2009.
- 조자현, 「<복선화음가(福善禍淫歌)>의 서술구조에 대한 화쟁기호학적(和諍記號學的) 분석」,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5.
- 조자현, 「계녀가에 나타난 조선후기 양반 여성들의 감정구조」, 『국제어문』 46집, 국제어문학회, 2009.
- 조지형, 「1906년~1910년 경향신문(京鄉新聞) 소재 천주가사의 특성과 그 지향」, 『국어문학』 제46집, 국어문학회, 2009.
- 최규수, 「계녀가류 규방가사에서 <귀녀가(貴女歌)>의 특징적 면모와 “귀녀(貴女)”의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5.
- 최분순, 「만분가에 나타난 한의 미학적 고찰」, 『경상어문』 15, 경상어문학회, 2009. 8.
- 최현재, 「충신연주지사의 전통과 만분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언어문학』 70, 한국언어문학회, 2009.
- 조규익, 「교훈의 장르론적 의미와 교훈가사」, 『고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학회, 2009. 6.

최상은, 「조선후기 가사의 어조(語調)와 이념적 지향 -교훈가사, 현실비판가사, 개화가사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27집, 반교어문학회, 2009. 8.

8. 잡가·민요(7)

박상영, 「서사민요 <말말애기노래>의 구조적 특징과 그 미학»,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11.

박애경, 「조선후기 서울지역의 문학과 도시문화사: 서도소리의 서울 유입과 도시문화로의 전환」, 『고전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6.

서영숙, 「부모-자식 관계 서사민요의 구조적 특성과 향유층의 의식」,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5.

유춘동, 프랑스 파리 국립동양어대학교 소장 주요 자료 해제 : 구한말 프랑스 공사관의 터다지기 노래, 원달고가, 『연민학지』 제12집, 2009. [1]

이규호, 「황산 이종린 편 언문풍월연구」, 『인문과학연구』 제33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2.

최난경, 「논매는 소리의 기능별 분류와 분포에 대한 고찰」, 『민족문화연구』 51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12.

최재남, 「조선후기 민요 연행의 실상과 서정시가의 향방」,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5.

9. 교육(16)

고영화, 「청소년기 향가 감상과 자아 형성에 대한 연구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와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5.

고영화, 「시조 형식 교육의 목표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23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9. 6.

고정희, 「『흥비부』를 통한 시조 정전(正典) 교육의 반성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24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9. 12.

김석희, 「고전시가 연구와 교육의 전망」, 『고전문학과 교육』 제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12.

박경주, 「경기체가의 형식미와 창작 원리 및 그 문학교육적 활용 시안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6.

- 박진태, 「향가의 표현 유형과 표현 교육에의 활용 방안」, 『한국언어문학』 70, 한국언어학회, 2009.
- 박춘우,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교훈전달방식과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우리말글』 45, 우리말글학회, 2009.
- 송지연, 「시조에 나타난 ‘반(半)’의 미의식과 감상교육」, 『고전문학과 교육』 제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12.
- 염은열, 「고전시가 연구 및 고전시가 교육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제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12.
- 임주탁, 「국어교과의 고전시가 작품 수용에 대한 비판」, 『한국문학논총』 53집, 한국문학회, 2009.
- 정기철, 「새로운 시조 교육을 위한 질문 제시의 기법」, 『시조학논총』 제30집, 한국시조학회, 2009. 1.
- 조하연, 「고전시가 평설에 나타난 감상의 즐거움」, 『고전문학과 교육』 제1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6.
- 조희정, 「고전시가 쓰기 교육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12.
- 조희정, 「고전시가를 활용한 투사적 글쓰기 방법 연구 - <오우가>를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2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 최홍원, 「고전시가 관계 치환의 교육 내용 연구-남성 작자의 여성화자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 최홍원, 「고전시가 모호성의 교육적 이해」, 『국어교육연구』 44, 국어교육학회, 2009.

10. 장르통섭(22)

- 구봉곤, 「조선후기 부와 가사 문학 비교」, 『우리말글』 47, 우리말글학회, 2009.
- 김대행, 「기조발제: 한국 시가의 근대적 대응」,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5.
- 김완성, 「국문학: 향가 <찬기과랑가>, 윤선도 <오우가>, 박목월 <나그네>의 달의 의미 고찰」, 『새국어교육』 81,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 김월덕, 「세시가요(歲時歌謠)의 지향성과 농경문화적 의미」, 『국어문학』 제47집, 국어문학회, 2009.
- 김종진, 「전통 시가 양식의 전변과 근대 불교가요의 형성」, 『한국어문학연구』 5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9.

- 박애경, 「조선 후기, 개화기 시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방학지』 제146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6.
- 박춘우, 「고전시가에 나타난 꽃의 심상(心象) 유형」, 『고시가연구』 제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12.
- 서철원, 「종교시로서 신라(新羅) 향가(鄕歌)와 T. S. 엘리엇 엮어읽기」, 『고시가연구』 제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12.
- 성호경, 「조선 후기 ‘평민시가’의 시적 초점과 창작원리」, 『어문학』 105집, 한국어문학회, 2009.
- 성호경, 「조선 후기 “평민시가(平民詩歌)”의 통속예술적 성격 -조선 후기 “평민시가”의 시적 초점과 통속예술적 성격(2)-」, 『한국고전연구』 제2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12.
- 윤덕진, 「『남원고사』계 『춘향전』의 시가 수록과 시가사의 관련 모색」,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11.
- 이연숙, 「향가와 『만엽집(萬葉集)』 작품의 표현 비교 연구 -돈호법과 감탄사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47집, 한국비교문학학회, 2009. 2.
- 이윤선, 「향가 <처용가>와 고려 <처용가>의 인물 변이 양상과 그 의미」, 『문학과학어』 31, 문학과학어학회, 2009.
- 이임수, 「한국시가사의 시대구분 고(考)」, 『어문논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 정인숙, 「조선후기 시가에 나타난 도시적 삶의 양상과 그 의미」, 『어문학』 103, 한국어문학회, 2009.
- 최정선, 「향가(鄕歌)와 찬시(讚詩)의 결합양상과 의미」, 『동방학』 제17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10.
- 하운섭, 「선초(鮮初) <오륜가(五倫歌)>의 고전적 원천과 그 의미 -경기체가 <오륜가>와 시조 <오륜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60집, 민족어문학회, 2009. 10.
- 김혜숙, 「시의 본질론 내지 표현론의 관점에서 본 시와 성정에 관한 논의」,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5.
- 박영준, 「韓日詩歌의 律格 比較研究」, 『어문논집』 제40집, 중앙어문학회, 2009. 3.
- 조태성, 「감성의 변천과 고시가 장르의 변천사」, 『고시가연구』 제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12.
- 최재남, 「흥과 시름의 구현 양상 연구」, 『고시가연구』 제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12.
- 한수영, 「한국시 운율 이론의 반성적 고찰」, 『어문연구』 60, 어문연구학회, 2009.

11. 박사학위논문(10)

- 김정인, 「少太山の 歌辭文學 研究」, 圓光大學校, 2009
- 김진희, 「송강가사의 수용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8.
- 류병운, 「鄉歌의 形成過程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9. 2.
- 박상영, 「사설시조 웃음의 미학적 연구」, 2009. 6.
- 박재민, 「三國遺事所載 鄉歌의 原典批評과 借字· 語彙 辨證」,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2.
- 손영화,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 의식 연구: 놀이 기반 규방가사의 여성놀이문화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9. 2.
- 원종인, 「서사적 규방가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8.
- 이옥희, 「한국 시가문학의 문답체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9. 8.
- 조원형, 「천주가사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8.
- 주영숙, 「사설시조의 변용양상 연구 : 한국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9. 2.

12. 석사학위논문(14)

- 권현주, 「소정가사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곽지숙, 「18세기 한·일 시가문학에 나타난 성애의 양상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2.
- 김미정, 「시조와 한시의 갈래 교섭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9. 8.
- 김미정, 「미국기행가사 <혜유가>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아연, 「<초당문답가>의 담론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9. 2.
- 김연실, 「잡가의 패러디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9. 8.
- 김인숙, 「시조의 문학 치료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8.
- 김진영, 「17세기 사대부 시조 연구: 강호 시조와 훈민 시조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9. 2.
- 김태희, 「『역대시조선』의 문헌적 특성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9. 8.
- 노경순, 「애정시가에 나타난 애정 형상 및 표현 방식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2009. 8.
- 연선예, 「16세기 이전 사설시조의 작자와 작품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계용, 「일동장유가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2009. 2.
- 이상숙, 「화답형 화진가의 표현방식과 기능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9. 2.

조인환, 「<공무도하가>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9. 8.

13. 교육대학원학위논문(17)

- 강은혜, 「송강의 전·후미인곡 연관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강찬미, 「연군시가의 유형별 특성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2009. 2.
- 김경민, 「김수장 시조의 특질고」,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2009. 8.
- 김소영, 「애정계 사설시조의 수사 장치와 그 역할」,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2009. 8.
- 김은미, 「<계녀가>의 문체론적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2009. 8.
- 손영희, 「이우걸 시조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문학예술학과 문학창작전공, 2009. 2.
- 송성중, 「개화기 시가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2009. 8.
- 박지원, 「감상 능력 향상을 위한 고전시가 교수-학습 방법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2009. 2.
- 안효선, 「대중 매체를 활용한 시조 교육방법」,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2009. 8.
- 이다현, 「경기체가·악장의 갈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향 모색: 「한림별곡」, 「용비어천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2009. 8.
- 이수철, 「고전시가의 음악성 고찰: 운율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2009. 2.
- 이승재, 「향가와 속요의 기원성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2009. 8.
- 이아름, 「송강 가사의 교수·학습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국어교육), 2009. 8.
- 이은진, 「조선후기 계녀가의 여성 교육적 의의」,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2009. 8.
- 주정화, 「조선후기 시가의 하층여성 형상과 문학적 의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 2009. 8.
- 한수진, 「<어부사시사> 교육의 방향성 탐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 2009. 2.
- 홍소희, 「고려가요의 여성화자와 대안적 여성상: <동동>의 여성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 2009. 2.

14. 단행본(30)

- 고가연구회 편, 『향가의 깊이와 아름다움』, 보고사, 2009.
- 고영화, 『한국 고전시가의 교육적 탐색』, 한국학술정보, 2009.
- 고정희, 『한국 고전시가의 서정시적 탐구』, 월인, 2009.
- 권정은, 『자연시조: 자연미의 실현 양상』, 보고사, 2009.
- 김대행 저, 이경희 譯, *Classical poetic songs of Korea*,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김대행, 『한국의 고전시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김문기·김명순 편저, 『시조·가사·한역가전집』 1-3, 태학사, 2009.
- 김병국, 『고전시가의 품격미학』, 월인, 2009.
- 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시가문학』, 월인, 2009.
- 김정주, 『고전시가 강독』, 조선대학교출판부, 2009.
- 김정주, 『시가문학연구』, 조선대학교출판부, 2009.
- 김종진, 『불교가사의 계보학, 그 문화사적 탐색』, 소명출판, 2009.
- 김학동 엮음, 『개화기시가집』, 1-4, 새문사, 2009.
- 김학성, 『한국 고전시가의 전통과 계승』,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 김형태, 『대화체 가사의 유형과 역사적 전개』, 소명출판, 2009.
- 류혜춘, 『가사문학의 미학』, 보고사, 2009.
- 박경주, 『한국시가문학의 흐름』 월인, 2009.
- 서철원, 『한국 고전문학의 방법론적 탐색과 소묘』, 역락, 2009.
- 성호경, 『한국시가 연구의 과거와 미래』, 새문사, 2009.
- 신재홍, 『화랑세기 역주』, 태학사, 2009.
- 『유성기음반 가사집』, 1-4, 민속원, 2009.
- 이연숙, 『향가와 만엽집 작품의 비교연구』, 제이앤씨, 2009.
- 이창식, 『고전시가 강의』, 역락, 2009.
- 임종찬, 『시조문학 탐구』, 국학자료원, 2009.
- 임주탁, 『옛노래 연구와 교육의 방법』, 부산대학교출판부, 2009.
- 최용수 편, 『옛 시조 읽기』, 문예원, 2009.
- 한창훈, 『고전문학과 교육의 다각적 해석』, 역락, 2009.
- 황준연, 『조선조 정간보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 황충기 역주, 『해동약장』, 푸른사상사, 2009.
- 황충기 주해, 『조선시대 연시조 주해』, 푸른사상, 2009.